

지역 매아리

김제시 재향군인회, 육탄용사

고안영권 하사 산화 67기 추모제 열어

김제시재향군인회(회장 박 영봉)는 육탄용사들이 산화한 날인 10월 12일을 맞아 금산사 입구에 위치한 안 영권 하사 전공 기념비에서 산화 제67주기 추모제를 지난 11일에 실시했다.

이날 추모제에는 박준배 시장, 온주현 시의회 의장을 비롯 황선우 전북 서부보훈지청장, 도의원 및 시의원 등 기관 및 단체장, 유가족과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추모제는 2014년 10월 국가보훈처로부터 고(안영권 하사)가 6.25 전쟁영웅으로 선정된 이후 현재까지 고향 김제에서 추모제가 매년 진행돼 그 의미를 더했다.

김제시재향군인회 박영봉 회장은 추념사에서 "안 영권 하사의 명복을 빌며 추모제를 주관하게 되어 영광스럽다며, 슬픔과 그리움을 안고 살아오신 유가족들에게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박 준배 김제시장은 추모사를 통해 "안 영권 하사님이 불굴의 투혼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주신 조국 대한민국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며 "철저한 안보의식과 대응태세를 갖추고 사회화함으로 국론을 하나로 모아 탄탄대로의 국력을 만들어 가는데 모두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보건소, '화상별례' 접촉 주의 당부

김제시보건소(보건소장 김형희)는 최근 일명 '화상별례'라고 불리는 '침뽀찌개 미반날개'가 전국 각지에 출몰함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 기숙사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동남아시아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상별례는 1960년대 국지적 유행 후 간헐적으로 환자가 발생하였고, 현재 국내에 토착화 되어 주로 산이나 평야의 습한 지역에 서식하고 있다.

크기는 6~8mm정도로, 개미와 비슷하며 머리와 가슴, 배 부분 색깔이 각각 다른 것이 특징이며 낮에는 주로 먹이 활동을 하고 밤에는 빛을 따라 실내로 유입하는 성향이 있어 주로 밤에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화상별례는 사람과 접촉할 경우 꼬리에서 페데린이라는 독성물질을 분비해 상처를 입히며, 상처는 통증을 수반하므로 접촉했을 때에는 상처 부위를 만지거나 긁지 말고 흐르는 물로 씻고 물집이나 통증이 심한 경우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또한 화상별례의 전용 퇴치약은 없지만 가정용 에어로졸 같은 모기 살충제로 방제 효과를 볼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종자산업 메카의 꿈 실현

김제시, 2019 국제종자박람회 성공적 개최 위한 현장보고회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2019 국제종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허전 부시장의 주재로 지난 10일 행정지원 최종점검 현장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는 종자산업진흥센터 종자박람회 행정지원 실무협의회의 연장선에서 행사 전 준비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박람회 기간에 이루어지게 될 지원계획을 들어보는 자리였다.

이날 보고회는 8월말 개최된 국제종자박람회 행정지원 실무협의회의 연장선에서 행사 전 준비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박람회 기간에 이루어지게 될 지원계획을 들어보는 자리였다.

온·오프라인 홍보, 현수막 등 홍보물 관리, 행사장 주변 제조작업, 박람회장 가로수 정비, 음식·숙박업소 지도 점검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행사기간 동안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교통 및 주차장 관리지원, 교통



김제시는 2019 국제종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난 10일 종자산업진흥센터 종자박람회 행정지원 최종점검 현장보고회를 열었다.

정제 및 불법 주차차를 대비한 셔틀버스 승강장 운영, 행사장 주변 노점상 단속 및 앰블런스를 포함한 응급구호반을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한 충분한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허전 부시장은 "작년에 제2회 박람회를 통해 53억원 규모의 종자수출 계약을 성사시켜 제1회 박람회의 34억원 수출계약 대비 150% 이상 증가된 수출실적을 보였다"며 "올해도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통해 우리 시 종자산업 메카의 꿈을 실현시키

고 종자수출 확대라는 국가목표를 달성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2019 국제종자박람회는 김제시 백산면에 위치한 민간육종연구단지 일원에서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개최되며 주제존, 산업존, 전시포 등의 전시프로그램과 각종 학술행사 및 일반 관람객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종자산업 관련 기업들이 비즈니스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김제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초생활보장 사업 등 11개 사업 2,230세대의 소득, 재산 등 변동사항에 대하여 '2019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사업, 차상위반인부담경감 등의 급여를 받고 있는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국토교통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행 및 증권사의 금융자료 등 80종의 소득·재산 관련 공적 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여 자격변동사항을 정비한다.

현재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된 정비대상자 개별 예상 변동사항은 전체 2,230건 중에서 급여증가 455건, 급여감소 669건, 급여중지 및 자격변동 1,106건으로 김제시에서는 확인조사 및 각종 증빙자료를 활용하여 현재

보호받고 있는 수급자들의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확인조사조사과정에서 급여중지 및 감소가 예상되는 대상자에게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12월까지 의견 청취 기간을 두어 탈락사유, 소명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중지가 예상되는 대상자에게는 긴급지원, 전북형기초사업 연계와 지방생활보장금 등을 통하여 관리구제 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조사결과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중지와 지급한 보장비용을 환수조치 할 계획이다.

최영욱 주민복지과장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복지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환수하여 복지급여의 누수를 막는 한편,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김제시 지방생활보장심의회를 통한 관리구제와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최정현 작가 '상상력 박물관'

김제문화예술회관 전시실서 내일부터 11월 1일까지

김제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10월 15일부터 11월 1일까지 '반쪽이의 상상력 박물관'을 개최한다.

2019년 미술창작 전시 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인 이번 전시회에 서는 오토바이로 만든 독수리, 다리미로 만든 펠리컨, 소화기로 만든 펭귄, 전구로 만든 침술모 등 일상의 평범한 쓰레기들이 카리스마 넘치는 예술 작품으로 변신한다.

상상력과 창의력을 유발시키는 재미있는 체험 전시로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고, 사물을 보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작가 특유의 사사적인 상상력과 재치, 풍자를 담아낸 지구촌의 인간과 생명체가 질펀하게 더져 붙어 살아가는 이야기, 생명 존중, 생태환경, 자원 재활용, 창의력과 자연의 소중함 재인식, 어



른들에게는 작가의 해안으로 창안된 현대미술의 진수를 느낄 수 있다.

전시회는 기간일 동안 휴관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 가능하며 무료이다. 문의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imje.go.kr/art>) 및 전화 063-540-4176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도시경쟁력 전국 '최고'

2019 대한민국 도시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완주군의 도시경쟁력이 전국 최고 수준을 인정받았다.

완주군은 지난 11일 서울시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거머쥐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2019년 대한민국 도시대상평가의 도시의 지속가능성, 생활 인프라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국내의 가장 권위있는 상으로 손꼽힌다.

특히나, 이번 완주군의 수상은 군 단위로는 유일해 전국적인 이목을 끌고 있다. 대도시에 비해 생활 인프라가 열악한 군 단위의 경우 도시경쟁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가 힘들어도 불구하고, 완주군이 국무총리상을 거머쥐었기 때문이다.

실제 도시대상은 안전, 사회복지, 문화, 인구, 경제, 환경, 교통, 주민참여 활성화 등 총체적인 지표를 담고 있다. 완주군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적재적소에 시행하면서 도시경쟁력을 크게 상승시켰다는 평가

를 받았다. 그동안 완주군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농민기공 활성화 및 로컬푸드사업 ▲공장 집단화 및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 ▲교통약자를 위한 으뜸택시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산림바이옴메스 메카조성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등에 박차를 가했고, 이들 사업들이 호평을 받았다.

또한, 완주군은 지난 2009년 장관상, 2012년 특별상을 수상한데 이어 이번 국무총리상까지 받으며, 차근차근 도시경쟁력을 쌓아왔다는 평가까지 얻게 됐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그동안 군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성과를 인정받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소득과 삶의 질 높은 15만 지족도시 완주'를 위해 매진해 다함께 열어가 는 으뜸도시 완주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귀농귀촌인 성공 정착 적극

완주군이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 있다.

완주군은 13개 읍면 이장 53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귀농귀촌 옹호교육을 마무리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완주군 귀농귀촌 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지역리더와 함께하는 귀농귀촌 옹호교육'은 귀농귀촌인이 온전히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리더의 중요성과 이해를 돕기 위한 형식으로 진행됐다. 지역리더인 이장·부녀회장이 지역민과 귀농귀촌인 사이에서 완충역할을 해주고, 감동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를 이해시키는 노력을 통해 귀농귀촌인을 진정한 지역민으로 맞이하고 이를 지역발전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완주=이종복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